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창세기 46장 1-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세밀하신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나의 연약한 감정이나 느낌 대신 영원한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며 누려야 합니다.

사탄의 참소에 속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생각과 감정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입으로 힘있게 시인함으로 죄의 권세를 꺾는 믿음의 선포를 삶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
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
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
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Living Boldly in Our New Identity in Christ



Passage: Genesis 46: 1-7 (ESV)

Date: July 5, 2026

Pastor: Dong Suk Chung

Life is full of major pivots—moments where we must pack up what is familiar and step into the unknown. In Genesis 46, Jacob has just discovered that his son Joseph is alive and ruling as the Prime Minister of Egypt. To reunite with him, Jacob must uproot his entire life. Before leaving, he stops at Beersheba to worship. This is sacred ground where Jacob, his father Isaac, and his grandfather Abraham all met God; it symbolizes God's covenant and redemption. It is where God speaks to Jacob: "I am God, the God of your father. Do not be afraid to go down to Egypt, for there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I myself will go down with you to Egypt, and I will also bring you up again."

God's assurance wasn't simply, "You will survive Egypt." It was, "I will bring you back." This promise is not just for Jacob, but for all of us who have experienced the redemption of the cross. This is a promise kept not through human effort but through God alone, shown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who left His true home, entered exile, and secured the way back for everyone who trusts Him. A person with this faith does not need to fear the "Egypt" of this world. This world is not our eternal dwelling place, but a spiritual training ground for experiencing God's salvation. Our true home is His eternal kingdom.

That's really the heart of this passage. Faith is not striving to become "better people." Faith is accepting and declaring what the Word of God says is already true: through the blood of Jesus, you are a justified, holy child of God. When we embrace this identity and confidently confess it, the Holy Spirit works within us and weakens the power of sin that tries to cling so closely. Just as Joseph's family was given access to the abundance of Egypt because of him—and not because of anything they did—we enjoy the riches of grace purely because of what Jesus has done. The Word is not an object to be studied as knowledge, but spiritual food to be accepted as life, and the more we believe, the more it becomes the reality within us. This faith isn't burdensome or complicated. It doesn't require us to constantly analyze whether we've done enough. It simply asks us to receive what has already been finished in Christ.

Resting in this truth can be hard

because our natural instinct is always to do something. We hear the gospel and immediately start asking what we need to do to keep from losing it and focusing on doing well in order to stay in God's good graces. But this only makes our burdens heavier and our joy harder to find. The alternative isn't laziness or passivity; it is simply trusting that the same God who finished the work of our salvation is the One sustaining it. When we let this truth settle into our hearts, it changes how we pray, how we face hardship, and how we see ourselves. We no longer exhaust ourselves trying to copy Christ through sheer human effort; instead, we step into the identity He has already secured for us by surrendering our egos and plans and asking for His will to be done.

Because God's wisdom is intimately personalized, He meets us exactly where we are in this journey of surrender. When Jacob's family arrived, Joseph wisely taught them to tell Pharaoh that they were shepherds, a humble trade looked down upon by the Egyptians. This social barrier kept them isolated in the land of Goshen, protecting them from being influenced by the spiritually corrupt culture of Egypt and allowing them to grow into a distinct, holy nation.

The same is true for us today. The things that the world dismisses as lowly are often exactly what God uses to protect and provide for His people. What looks like weakness or insignificance from the outside can be the very posture that keeps us near to where our Shepherd wants us. To the world, the message of the cross and a life of surrender may look foolish and weak. Yet, when we "die daily" to our anxieties, our demands for specific outcomes, and our frantic need to control our circumstances, Christ reveals Himself through us as our True Shepherd. Egypt, and this world, is not our final home. God has placed us in our specific, stressful environments intentionally to be channels of His grace and salvation, with the ultimate promise that we are destined to go to His eternal kingdom.

This is the invitation Genesis 46 leaves us with. We are called to live boldly as new identities in Christ. Just as Joseph's brothers confessed to being humble shepherds in a culture that despised them, we must not let the values of this world define us. Don't measure your life, or your worth, by what the world calls impressive. Rest in the fact that everything necessary for your salvation has already been accomplished—not by your effort, but by the One who promised to bring you home.

나성교회



심성교회

7월 19일 2026년

NASUNGCHURCH.NET

116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46장 1-7절

날짜: 7월 5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어 오셨고, 그 계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신 역사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체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근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보여 주는 예표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높아짐으로 야곱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풍성함을 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이며, 우리의 참된 본향은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과, 야곱이 잃었던 요셉을 다시 얻은 사건도 모두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담대히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풍성함을 누렸듯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과 생명을 누립니다. 죄를 이기려는 인간의 결심보다,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죄의 권세를 약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진리를 믿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와 신앙생활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양식이며, 믿을수록 우리 안에 실체가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서시

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
리의 신앙은 바로 이 은혜 위에서 시작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70명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얼마나 세밀하고 개인적이신지를 증명
합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설 형제들
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있고
천대하는 ‘목자’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라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에 동화되어 영혼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오늘 성도는 고센 땅에 거한 야곱의
가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광
은 잠시뿐이지만, 예수 안에서 얻는 생명
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
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 이미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의 감정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 귀한 신
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간 소 식

- 오늘 2부 예배 때 침례식을 갖습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 7월 25일부터 나성교회 홈페이지 대표주소가 nasungchurch.net
에서 nasungchurch.org로 새롭게 변경됩니다.
- 교우수첩 제작을 위한 교우 등록을 다음 주일 7월 26일 마감합니다.
남은 시간 모든 교우들이 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 (7/26) 2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아래층 중고등부실에서
2026년 대심방을 위한 교구장과 구역장 합동모임을 갖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수첩 정보 입력 (다음주 마감)

나성교회 새로운 교우수첩 제작을 위해 모든 교우분들께서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약 1-
2분 소요). 가족 구성원 (배우자, 자녀 포함)은 각자 한 번씩
입력해 주세요. (문의: 홍성훈 형제 562-746-7970)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와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장금숙 집사 교통사고로 오른쪽 손목 골절상 (6주 진단)을 입어
치료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옥순 집사 오른쪽 약지 발가락 골절로 치료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신아영 사모 자궁선근증으로 인하여 자궁을 적출(개복)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양희 집사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희정 집사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B 집사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신자 집사
(한나선교회)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오중 집사
(3남선교회)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미리암 리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에스더선교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학철 목사님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 난소암 수술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회)
- 이시용 장로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
(모세선교회) 부탁드립니다.
- 조연경 형제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선교회)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옥봉 권사 오른쪽 어깨 탈골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 감소와
(모세선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수영 장로 무릎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여호수아선교회) 부탁드립니다.
- 홍영강 권사 넘어져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모세선교회)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제인 집사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1여선교회)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 박관서 형제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모세선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유니스 안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4,5 여선교회)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심순근 권사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모세회)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폴리 자매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3여선교회)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모세회)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1여선교회) 기도 부탁드립니다.